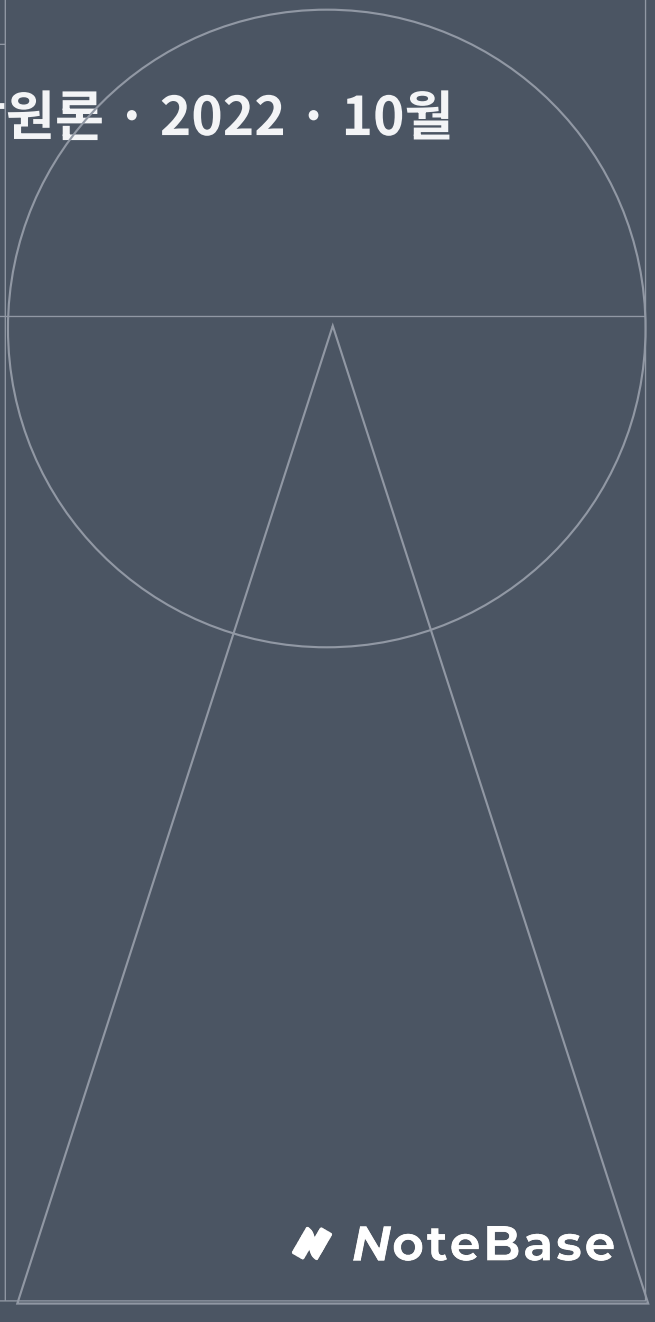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2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2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2 · 10월

문 1. 피구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는 이를 부(wealth)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②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화폐공급의 증가를 가져와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③ 실질화폐잔고가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④ 소비가 가처분소득만의 함수라고 가정한다면 피구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구효과와 케인즈효과를 구별하고, 피구효과가 소비함수에 어떤 변수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피구효과는 물가 하락으로 실질화폐잔고의 가치가 커져 가계가 자신을 더 부유하다고 느끼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이다.
케인즈효과는 물가 하락으로 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이다.
따라서 피구효과의 핵심 키워드는 부, 실질화폐잔고, 소비이고, 케인즈효과의 핵심 키워드는 실질화폐공급, 이자율, 투자, LM곡선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물가가 하락하면 같은 명목화폐로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으므로 가계가 보유한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한다. 이는 부의 증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피구효과 설명에 맞는다.
2번: X. 틀린 부분은 "실질화폐공급의 증가를 가져와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이다. 이는 피구효과가 아니라 케인즈효과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물가 하락으로 실질화폐잔고의 가치가 커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피구효과이다.
3번: O. 피구효과는 실질화폐잔고가 가계의 부를 구성하며 소비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실질화폐잔고는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4번: O. 소비가 가처분소득만의 함수라면 실질화폐잔고 변화에 따른 부의 효과가 소비함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가정 아래에서는 피구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물가 하락이 나오면 곧바로 실질화폐공급 증가와 LM곡선 이동을 떠올려 2번을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그러나 LM곡선, 이자율, 투자 증가는 케인즈효과의 언어이고, 피구효과는 부의 증가와 소비 증가의 언어라는 점이 구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부, 실질화폐잔고, 소비가 나오면 피구효과를 의심하고, 실질화폐공급, 이자율, 투자, LM곡선이 나오면 케인즈효과를 의심하면 된다. 또 소비함수에서 가처분소득 외에 부 변수가 빠져 있으면 피구효과는 설명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피구효과는 실질잔고 상승이 부를 늘려 소비를 늘리는 효과이고, 케인즈효과는 실질화폐공급 증가가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늘리는 효과이다.

NoteBase

문 2.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상태에서 노동만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갑(甲)사의 노동의 단위당 비용은 1만원이다. 갑(甲)사의 한계비용은 제품 생산량과 무관하게 2만원으로 일정하다. 갑(甲)사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① 0.5개

② 1개

③ 1.5개

④ 2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이 노동만을 투입할 때의 한계비용 공식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노동 1단위당 비용은 1만원이다.
-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2만원이다.
- 생산요소는 노동뿐이다.

구해야 할 값:
- 노동의 한계생산

주의할 조건:
- 노동만 투입하는 경우 한계비용은 추가 산출물 1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 노동비용으로 계산된다.

사용할 공식

사용 공식은 $MC = \frac{w}{MPL}$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노동만이 가변투입요소이면 산출물 1개를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은 노동임금 w를 노동의 한계생산 MPL로 나눈 값이 된다.

계산 과정

1. 문제의 값은 $w = 1$만원, $MC = 2$만원이다.
2. 공식 $MC = \frac{w}{MPL}$에 대입하면 $2 = \frac{1}{MPL}$이다.
3. 정리하면 $MPL = \frac{1}{2} = 0.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노동의 한계생산은 0.5개이므로 맞다.
- 노동 1단위를 추가하면 산출물이 0.5개 늘어나고, 그때 산출물 1개를 더 만들기 위한 비용이 2만원이 된다.

② X
- 1개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5개이다.
- 만약 $MPL = 1$이면 MC=(1만원)/(1)=1만원이 되어 문제의 2만원과 맞지 않는다.

③ X
- 1.5개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5개이다.
- 만약 $MPL = 1.5$이면 MC=(1만원)/(1.5)≈0.67만원이 되어 한계비용이 너무 작아진다.

④ X
- 2개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0.5개이다.
- 만약 $MPL = 2$이면 MC=(1만원)/(2)=0.5만원이 되어 제시된 한계비용과 모순된다.

오답 포인트

평균생산과 한계생산을 혼동하거나, $MC = \frac{w}{MPL}$를 거꾸로 보지 못하면 1개나 2개처럼 큰 값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노동생산성이 클수록 한계비용은 작아진다는 역관계를 놓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만 투입하는 계산형 문제는 먼저 노동임금과 한계비용을 확인한 뒤 $MC = \frac{w}{MPL}$ 또는 $MPL = \frac{w}{MC}$로 바로 바꿔 판단한다. 생산성이 커질수록 비용은 내려가고, 생산성이 작을수록 비용은 올라간다는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노동만 투입하면 한계비용은 임금을 한계생산으로 나눈 값이며, $MPL = \frac{w}{MC}$이다.

NoteBase

문 3. 개방경제하의 총수요-총공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화폐공급량을 늘리면 국민소득과 물가의 상승폭은 환율상승으로 인해 폐쇄경제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②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국민소득과 물가의 상승폭은 순수출의 감소로 일부 상쇄된다.

③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화폐공급량을 늘리면 외환의 초과공급을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원래의 확장효과가 상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④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화폐공급의 증가로 경기확장 효과가 커지므로 통화정책보다 더욱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이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환율조정과 외환시장 개입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시장에서 조정되므로 통화정책은 금리 하락→자본유출→환율 상승→순수출 증가가 겹쳐 효과가 커진다.
고정환율제도: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므로 통화정책은 원래의 효과가 되돌려지고, 재정정책은 개입 과정의 통화공급 증가가 더해져 효과가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변동환율제도에서 화폐공급을 늘리면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로 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수요가 추가로 확대되어 폐쇄경제보다 국민소득과 물가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② O: 변동환율제도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총수요가 증가해 소득과 물가가 오르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본유입이 환율 하락을 유도해 순수출을 줄인다. 따라서 재정확대 효과의 일부가 순수출 감소로 상쇄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외환의 초과공급'이다. 고정환율제도에서 화폐공급을 늘리면 이자율 하락으로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환율상승 압력이 생기므로 외환의 초과수요가 나타난다. 이를 해소하려고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하면 시중 통화량이 다시 줄어 원래의 확장효과가 상쇄된다. 올바르게는 '외환의 초과수요를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원래의 확장효과가 상쇄된다'이다.
④ O: 고정환율제도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소득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유입이 발생해 환율하락 압력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려고 외환을 매입하면 통화공급이 증가하므로 재정정책의 확장효과가 더 커진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뒤따르므로, 외환의 초과수요와 초과공급 방향을 바꾸어 기억하면 선지 판단이 뒤집힌다. 이 문항에서는 ③의 '외환의 초과공급'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제도를 구분한 뒤 정책효과의 방향을 연결하면 판단할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는 통화정책이 환율조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재정정책은 순수출 감소로 약해진다. 고정환율제도는 통화정책이 외환시장 개입으로 상쇄되고 재정정책은 통화공급 증가가 동반되어 강해진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은 통화정책 유효, 고정환율은 재정정책 유효이다.

NoteBase

문 4.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생산한 재화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만, 국외 거주 내국인이 생산한 재화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사도우미 등 시장에서 거래된 가사노동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③ 기업 간 거래되는 중간생산물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어진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중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그 기간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내총생산의 포함 범위를 묻는 문제로, 생산의 장소 기준과 시장거래 여부, 중간생산물과 재고투자의 처리 차이를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뜻한다.
국내 기준은 생산 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로 판단한다.
판매되지 않은 생산물이라도 그 기간에 생산되었으면 재고투자로 보아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내총생산은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가치는 포함된다. 반대로 국외 거주 내국인이 해외에서 생산한 가치는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생산 쪽에 연결된다.

② O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 서비스이므로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가사도우미처럼 시장에서 대가를 받고 제공된 가사서비스는 시장거래이므로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③ O
기업 간에 거래되는 중간생산물은 최종재 가치에 이미 반영되므로 따로 합산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에는 중간생산물 자체의 가치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그 기간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그 기간에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재화도 재고투자로 처리되어 그 기간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4번은 국내총생산을 '판매된 것만 합산하는 지표'로 오해하면 틀리기 쉽다. 국내총생산은 판매 시점이 아니라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미판매 재고도 해당 기간 생산분이면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내총생산 문제는 먼저 국내인지 해외인지로 장소 기준을 확인하고, 그다음 시장거래 여부와 최종재 여부를 본다. 마지막으로 생산은 되었지만 팔리지 않은 재화가 보이면 재고투자로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GDP는 국내 생산 기준이며, 중간생산물은 제외되고 미판매 재고는 포함된다.

NoteBase

문 5. <보기>에서 단기 총공급곡선과 단기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는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와 오쿤의 법칙(Okun’s Law)에서 총생산갭과 실업률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ㄴ.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다면 총수요가 증가할 때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과 관련된다.
ㄷ. 단기 총공급곡선은 실업률 수준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의 변화와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단기 필립스곡선이 각각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오쿤의 법칙이 두 곡선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총공급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산출량 사이의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단기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오쿤의 법칙은 산출량이 잠재산출량보다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아진다는 연결고리이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을 실업률-인플레이션 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만 옳으므로 정답이다. ㄱ은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와 오쿤의 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인데, 산출량과 물가의 관계를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쿤의 법칙이 들어가므로 맞다.

② X
ㄷ이 틀렸으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단기 총공급곡선은 실업률 수준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나타내고, 단기 필립스곡선이 실업률 수준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단기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의 변화가 아니라 실업률 수준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여준다.

③ X
ㄴ이 틀렸으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이라는 부분이다.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 총수요 증가로 산출량이 늘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④ X
ㄴ과 ㄷ이 모두 틀렸으므로 오답이다. ㄴ에서는 단기 필립스곡선의 관계 부호를 정(+)로 잘못 썼고, ㄷ에서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단기 필립스곡선의 변수 구성을 서로 바꾸어 썼다. 올바르게는 단기 총공급곡선은 산출량-인플레이션, 단기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인플레이션의 관계이다.

오답 포인트

단기 총공급곡선과 단기 필립스곡선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므로 축에 놓이는 다른 변수를 뒤바꾸기 쉽다. 특히 ㄴ의 '우하향'만 보고 맞다고 넘기면, 바로 앞의 '정(+)'이라는 반대 표현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기 총공급곡선은 산출량과 물가, 단기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라고 축부터 구분하면 된다. 그다음 우하향 필립스곡선은 실업률 하락-인플레이션 상승의 부(-) 관계라는 점을 대입하면 선지의 옳고 그름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AS는 산출량-물가, Phillips는 실업률-물가, 오쿤은 산출량과 실업률을 연결한다.

NoteBase

문 6. 갑(甲)국의 온라인 배송서비스 시장은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갑(甲)국의 온라인 배송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온라인 배송서비스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② 균형가격은 상승할 것이나, 균형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③ 균형가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④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균형가격은 방향이 불확실하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는 비교정태 결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 증가란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이 구매하려는 변화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공급 증가란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이 판매하려는 변화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둘 다 거래를 늘리는 방향이므로 증가한다.
반면 균형가격은 수요 증가가 올리는 힘과 공급 증가가 내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어느 쪽 이동이 더 큰지에 따라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균형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균형가격이 반드시 상승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균형가격은 상승하고"이다. 올바르게는 균형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며,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X
균형가격이 불확실하다는 취지는 맞지만, 균형거래량까지 불확실하다고 본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균형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예측하기 어렵다"이다. 올바르게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③ O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는 모두 균형거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면 균형가격은 수요 증가의 상승 압력과 공급 증가의 하락 압력이 서로 반대여서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④ X
공급 증가만 보면 가격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수요도 함께 증가했으므로 균형가격 하락을 단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균형거래량은 감소"이다. 올바르게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실수가 핵심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두 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거래량은 같은 방향으로 확정되지만,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충돌하므로 확정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면 먼저 각 변화가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방향을 따로 적어 본다. 두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미는 변수는 확정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 변수는 상대적 이동 크기를 모르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는 거래량을 함께 늘리고, 가격은 서로 반대로 민다.

NoteBase

문 7.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가), (나), (다)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새 고전파경제학자들은 기존 이론들이 근로자들이 (가)을(를) 한다고 가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만약 근로자들이 (나)을(를) 한다면 총수요 확장정책이 단기에서도 물가만 상승시킬 뿐 실업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다)(이)라고 부른다.

① (가): 적응적 기대, (나): 합리적 기대, (다): 정책무력성의 명제
② (가): 완전한 예견, (나): 합리적 기대, (다): 화폐수량설
③ (가): 적응적 기대, (나): 완전한 예견, (다): 정책무력성의 명제
④ (가): 합리적 기대, (나): 완전한 예견, (다): 화폐수량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새 고전파의 기대형성 가정과 정책무력성의 명제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적응적 기대는 과거의 물가상승 경험을 바탕으로 기대를 서서히 수정하는 기대형성 방식이다.
합리적 기대는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며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기대형성 방식이다.
정책무력성의 명제는 예상된 총수요 확대정책은 단기에도 산출량이나 실업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만 올린다는 주장이다.
완전한 예견은 미래를 오차 없이 정확히 아는 경우로, 합리적 기대보다 더 강한 가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기존 이론 가정은 적응적 기대이다. 새 고전파는 근로자가 과거 경험만 따라 기대를 늦게 수정한다고 보는 점을 비판했다. (나)는 합리적 기대이고, 이렇게 보면 예상된 총수요확장정책은 임금과 물가에 즉시 반영되어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 정책무력성의 명제라고 부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의 "완전한 예견"과 (다)의 "화폐수량설"이다. 기존 이론이 비판받은 기대형성은 완전한 예견이 아니라 적응적 기대이다. 또한 보기의 결론은 통화량과 물가의 장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화폐수량설이 아니라, 예상된 안정화정책의 실물효과 부재를 말하는 정책무력성의 명제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나)의 "완전한 예견"이다. 새 고전파가 정책무력성을 설명할 때 핵심으로 두는 가정은 완전한 예견이 아니라 합리적 기대이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적응적 기대-합리적 기대-정책무력성의 명제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의 "합리적 기대"와 (다)의 "화폐수량설"이다. 기존 이론이 근로자에게 가정한 것은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적응적 기대이다. 또한 예상된 총수요확장정책이 물가만 올리고 실업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은 화폐수량설이 아니라 정책무력성의 명제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한 예견과 합리적 기대를 같은 말처럼 섞으면 틀리기 쉽다. 또 물가만 오른다는 표현만 보고 화폐수량설로 가면 안 되고, 문장에서 묻는 것은 안정화정책의 효과 유무이므로 정책무력성의 명제로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새 고전파가 기존 이론을 비판하는 문장이 나오면 먼저 적응적 기대 대 합리적 기대를 구분한다. 그다음 예상된 총수요정책이 실업이나 산출량에 효과가 없고 물가만 오른다고 하면 정책무력성의 명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존 이론은 적응적 기대, 새 고전파는 합리적 기대, 예상된 정책은 정책무력성의 명제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8. 노동을 투입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갑(甲)사는 상품시장에서는 완전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갑(甲)사의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은 $VMP_L = 150 - L$, 한계노동비용곡선은 $MC_L = 2L$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 = w$이다. 갑(甲)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할 임금은? (단,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임금과 고용량은 각각 w와 L이다.)

① 25

② 50

③ 75

④ 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VMP_L = MC_L$로 고용량을 정한 뒤 노동공급곡선에서 임금을 읽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은 $VMP_L = 150 - L$, 한계노동비용곡선은 $MC_L = 2L$, 노동공급곡선은 $L = w$이다.
구해야 할 값: 이윤극대화 임금 w이다.
주의할 조건: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므로 임금 자체가 아니라 한계노동비용과 한계생산가치를 비교한다.

사용할 공식

수요독점 기업의 이윤극대 조건은 $VMP_L = MC_L$이다.
노동공급곡선이 $L = w$이므로 최적 고용량 L^*를 구한 뒤 그 점의 임금은 $w^* = L^*$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수요독점에서는 노동 1단위를 더 고용할 때 기존 노동자 임금까지 함께 올라가므로 임금 자체가 아니라 한계노동비용과 한계생산가치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50 - L = 2L$
$150 = 3L$
$L = 50$
노동공급곡선이 $L = w$이므로 $w = 5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5는 이윤극대 임금이 아니다. $L=25$이면 $VMP_L=125$, $MC_L=50$이므로 노동을 더 고용할 유인이 남아 있다. 올바르게는 $L=50$, $w=50$이다.
② O: $VMP_L=MC_L$에서 $L=50$이 나오고, 노동공급곡선 $L=w$에 대입하면 임금은 50이다.
③ X: 75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처럼 $VMP_L=w$를 바로 놓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수요독점에서는 임금이 아니라 MC_L와 비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50이다.
④ X: 100은 $MC_L=2L$에 $L=50$을 넣어 얻는 한계노동비용 값이다. 문제는 한계노동비용이 아니라 실제 지급임금을 묻고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50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독점에서는 VMP_L를 임금과 직접 같게 두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은 경쟁시장 규칙을 가져온 오답이고, ④는 한계노동비용과 임금을 같은 것으로 본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 구조를 먼저 본다. 수요독점이면 $VMP_L=MC_L$로 고용량을 구하고, 그다음 노동공급곡선에서 임금을 읽는다. 완전경쟁 노동시장이어야만 $VMP_L=w$를 바로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독점 고용은 $VMP=MCL$, 임금은 공급곡선에서 읽는다.

NoteBase

문 9. 철수는 아침에 빵을 먹는다. 먹는 빵의 개수를 늘림에 따라 그가 느끼는 지불용의는 <보기>와 같다. 빵의 가격이 100원일 때, 철수의 소비량과 소비자 잉여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첫 번째 빵: 1,000원
• 두 번째 빵: 500원
• 세 번째 빵: 200원
• 네 번째 빵: 0원

① 소비량: 1개, 소비자잉여: 1,000원
② 소비량: 2개, 소비자잉여: 900원
③ 소비량: 2개, 소비자잉여: 1,300원
④ 소비량: 3개, 소비자잉여: 1,400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빵의 한계지불용의와 시장가격을 비교해 최적 소비량을 정하고, 그때의 소비자잉여를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첫 번째 빵 1,000원, 두 번째 빵 500원, 세 번째 빵 200원, 네 번째 빵 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빵 가격이 100원일 때 철수의 소비량과 소비자잉여이다.
주의할 조건: 각 금액은 빵 1개를 더 먹을 때의 한계지불용의이므로 가격보다 큰 빵까지만 산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는 한계지불용의가 가격 이상인 수량까지 소비한다. 소비자잉여는 소비한 각 단위에 대해 (지불용의-가격)을 더한 값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보기>는 빵을 한 개씩 더 먹을 때의 지불용의를 제시하므로, 각 단위별로 가격 100원과 비교해 구매 여부와 잉여를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첫 번째 빵은 지불용의가 1,000원으로 가격 100원보다 커서 소비한다.
2. 두 번째 빵은 500원으로 가격 100원보다 커서 소비하고, 세 번째 빵도 200원으로 가격 100원보다 커서 소비한다.
3. 네 번째 빵은 지불용의가 0원으로 가격 100원보다 작으므로 소비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소비량은 3개이다.
5. 소비자잉여는 $(1,000-100)+(500-100)+(200-100)=900+400+100=1,4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개까지만 소비한다고 본 점은 틀린 표현이다. 첫 번째 이후에도 두 번째 500원, 세 번째 200원이 모두 가격 100원보다 크므로 3개까지 소비한다. 소비자잉여도 올바르게는 1,400원이다.
② X: 소비량을 2개로 본 점과 소비자잉여를 900원으로 본 점이 모두 틀린 표현이다. 900원은 첫 번째 빵의 잉여만 계산한 값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빵의 잉여를 빠뜨렸다. 올바르게는 3개를 소비하고 소비자잉여는 1,400원이다.
③ X: 소비량을 2개로 본 점이 틀린 표현이다. 1,300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빵의 잉여 $(900+400)$만 더한 값이므로 세 번째 빵의 잉여 100원을 빠뜨렸다. 올바르게는 3개를 소비하고 소비자잉여는 1,400원이다.
④ O: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빵까지의 지불용의가 모두 가격 100원보다 크고, 네 번째 빵의 지불용의는 0원이어서 사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량은 3개이고 소비자잉여는 1,4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총지불용의와 한계지불용의를 혼동하거나, 가격보다 큰 마지막 단위까지 소비한다는 원칙을 놓치는 데 있다. 특히 ③의 1,300원은 세 번째 빵의 잉여 100원을 빼먹으면 쉽게 나오는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계지불용의 표가 나오면 각 단위를 가격과 하나씩 비교해 마지막으로 가격 이상인 수량을 먼저 찾는다. 그다음 소비한 단위들에 대해서만 (지불용의-가격)을 더해 소비자잉여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량은 한계지불용의 $\geq$ 가격인 마지막 단위까지이고, 소비자잉여는 소비한 각 단위의 (지불용의-가격) 합이다.

NoteBase

문 10. 어느 경제에 모든 사람들이 화폐의 1/3은 현금으로, 2/3는 요구불예금으로 보유한다. 현재 지급준비율이 10%이고 은행들은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시중에 3,000만큼의 현금이 통화량으로 공급된다면 전체 통화량의 증가량은? (단, 은행의 부채는 요구불예금뿐이며 법정 지급준비금만 남기고 전액 대출로 자금을 운용한다.)

① 1,000

② 3,000

③ 7,500

④ 8,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예금비율과 지급준비율을 반영한 통화승수를 이용해 전체 통화량 증가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화폐 보유 비중은 현금 1/3, 요구불예금 2/3이다.
- 현금예금비율: $c = \frac{C}{D} = \frac{1/3}{2/3} = \frac{1}{2} = 0.5$이다.
- 지급준비율: $r = 0.1$이다.
- 구해야 할 값: 현금 3,000이 공급될 때 전체 통화량 증가분이다.
- 주의할 조건: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으므로 법정지급준비율만 반영한 통화승수를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m = \frac{1+c}{c+r}$

$\Delta M = m \times \Delta H$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함께 보유하고, 은행은 지급준비율만큼만 준비금을 남기므로 통화승수가 현금예금비율 c와 지급준비율 r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현금예금비율은 $c = \frac{1/3}{2/3} = 0.5$이다.
2. 통화승수는 $m = \frac{1+0.5}{0.5+0.1} = \frac{1.5}{0.6} = 2.5$이다.
3. 따라서 전체 통화량 증가분은 $\Delta M = 2.5 \times 3,000 = 7,5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증가량은 1,000이 아니라 7,500이다. 틀린 표현은 전체 통화량 증가분을 1,000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통화승수 2.5를 적용해 7,500이 된다.

② X
3,000은 공급된 본원통화 증가분일 뿐 전체 통화량 증가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공급된 현금과 전체 통화량 증가분을 같게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현금과 예금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므로 7,500이 된다.

③ O
통화승수는 2.5이고, 여기에 공급된 현금 3,000을 곱하면 7,500이 된다. 따라서 ③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 옳은 선지이다.

④ X
8,000은 올바른 계산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통화승수를 잘못 계산해 8,000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c = 0.5$, $r = 0.1$을 대입한 통화승수 2.5를 써서 7,500이 된다.

오답 포인트

현금 3,000을 그대로 통화량 증가분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이 문항은 현금예금비율이 주어졌으므로 단순 예금승수 $\frac{1}{r}$가 아니라 통화승수 $\frac{1+c}{c+r}$를 써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량 계산 문제가 나오면 먼저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해 현금예금비율 c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그다음 지급준비율과 함께 통화승수 $\frac{1+c}{c+r}$를 구하고, 마지막에 본원통화 증가분에 곱해 전체 통화량 증가분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을 함께 보유하면 단순한 $\frac{1}{r}$이 아니라 $\frac{1+c}{c+r}$가 통화승수이다.

NoteBase

문 11. 어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보기>와 같을 때,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90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격 상한선에서의 (가) 공급량, (나) 수요량, (다) 초과공급 또는 물량부족 수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Q^S = 2P,\ Q^D = 300 - P$
(Q^S는 시장공급, Q^D는 시장수요, P는 가격)

① (가): 180, (나): 210, (다): 물량 부족 30
② (가): 200, (나): 200, (다): 초과 공급 30
③ (가): 180, (나): 200, (다): 물량 부족 20
④ (가): 200, (나): 180, (다): 초과 공급 2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상한선이 주어졌을 때 공급함수와 수요함수에 해당 가격을 대입하여 공급량, 수요량, 물량부족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공급함수는 $Q^S = 2P$, 수요함수는 $Q^D = 300 - P$이다.
구해야 할 값: 가격상한선 $P = 90$에서의 공급량, 수요량, 초과공급 또는 물량부족 수량이다.
주의할 조건: 가격상한선에서는 주어진 가격을 각 함수에 그대로 대입한 뒤 $Q^D - Q^S$가 양수이면 물량부족, $Q^S - Q^D$가 양수이면 초과공급으로 판단한다.

사용할 공식

공급량은 $Q^S = 2P$, 수요량은 $Q^D = 300 - P$로 구한다.
물량부족 수량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클 때 $Q^D - Q^S$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가격상한선 90이 주어졌으므로 해당 가격에서 시장공급과 시장수요를 각각 계산한 뒤 두 수량의 차이로 초과공급인지 물량부족인지 판정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가격상한선 $P = 90$을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Q^S = 2 \times 90 = 180$이다.
2. 같은 가격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D = 300 - 90 = 210$이다.
3. 수요량 210이 공급량 180보다 크므로 물량부족이 발생한다.
4. 물량부족 수량은 $210 - 180 = 3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P = 90$에서 공급량은 180, 수요량은 210, 물량부족은 30이므로 제시 내용이 모두 맞다.
② X: 공급량을 200, 수요량을 200으로 본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공급량 180, 수요량 210이다. 또한 수요량이 더 크므로 초과공급 30이 아니라 물량부족 30이다.
③ X: 공급량 180은 맞지만 수요량을 200으로 본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수요량 210이다. 따라서 물량부족도 20이 아니라 $210 - 180 = 30$이다.
④ X: 공급량과 수요량을 서로 뒤바꾼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공급량 180, 수요량 210이다. 따라서 초과공급 20이 아니라 물량부족 30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상한선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초과공급이라고 보면 틀린다. 이 문제의 함정은 공급량과 수요량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직관으로 판단하거나, ④처럼 공급량과 수요량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규제 문제는 먼저 규제가격을 공급함수와 수요함수에 각각 대입해 두 수량을 구한 뒤, 수요량이 더 크면 물량부족, 공급량이 더 크면 초과공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상한선 문제는 규제가격→ 공급량 계산→ 수요량 계산→ 큰 쪽 확인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NoteBase

문 12. 갑(甲)국과 을(乙)국은 둘 다 X재와 Y재를 생산할 수 있다. 갑(甲)국은 1시간에 X재 10개 또는 Y재 20개를 생산할 수 있고, 을(乙)국은 1시간에 X재 15개 또는 Y재 25개를 생산할 수 있을 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갑(甲)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Y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갑(甲)국은 X재에, 을(乙)국은 Y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③ 을(乙)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Y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④ 을(乙)국은 X재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기회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우위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그 재화에 가지는 우위이다.
비교우위는 다른 재화를 얼마나 포기하는지, 즉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그 재화에 가지는 우위이다.
이 문항에서 을국은 X재 15개, Y재 25개를 생산하므로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 기회비용은 갑국의 $1X = 2Y$, $1Y = 0.5X$, 을국의 $1X = \frac{5}{3}Y$, $1Y = \frac{3}{5}X$이다. 따라서 X재는 을국, Y재는 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갑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없고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틀린 부분은 "X재에 비교우위"와 "Y재에 절대우위"이다. 올바르게는 갑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절대우위는 어느 재화에도 없다.

② X
갑국은 X재를 10개, 을국은 15개 생산하므로 X재의 절대우위도 을국에 있다. 틀린 부분은 "갑국은 X재에"이다. 올바르게는 을국이 X재와 Y재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③ O
을국은 X재 1개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Y재가 $\frac{5}{3}$개로 갑국의 2개보다 적으므로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또한 Y재는 을국이 시간당 25개로 갑국의 20개보다 많이 생산하므로 절대우위도 있다.

④ X
비교우위는 두 재화의 기회비용을 나누어 갖는다. 을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지면 Y재의 비교우위는 갑국에 있다. 틀린 부분은 "X재와 Y재에 비교우위"이다. 올바르게는 을국은 X재에만 비교우위를 가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②나 ④로 흔들리기 쉽다. 생산량 비교는 절대우위이고, 비교우위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간당 생산량으로 절대우위를 판단한 뒤, 각 나라가 재화 1단위를 만들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으로 비교우위를 판단하면 된다. 생산량이 모두 큰 나라가 있어도 비교우위까지 모두 갖는 것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이고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비교이다. 이 문항에서는 을국은 X재 비교우위, 갑국은 Y재 비교우위이다.

NoteBase

문 13. 독점시장에서 시장 수요 함수는 $P = 9 - Q^D$이고, 독점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 = 0.5Q^2$이다.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의 독점이윤은? (단, P는 가격, Q^D는 시장수요, TC는 독점기업의 총비용, Q는 독점기업의 생산량이다.)

① 12

② 13.5

③ 18

④ 독점이윤은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를 이용해 독점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시장수요함수 $P = 9 - Q$, 총비용함수 $TC = 0.5Q^2$이다.
구해야 할 값은 이윤극대화 시점의 독점이윤이다.
독점시장이므로 시장수요량 Q^D와 기업 생산량 Q를 같게 본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은 $TR = P \times Q = (9 - Q)Q = 9Q - Q^2$이다.
한계수입은 $MR = \frac{dTR}{dQ} = 9 - 2Q$, 한계비용은 $MC = \frac{dTC}{dQ} = Q$이다.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에서 $MR = MC$를 만족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스스로 결정하며, 이때 추가수입과 추가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MR = MC$를 적용하면 $9 - 2Q = Q$이므로 $Q = 3$이다.
2. 가격은 수요함수에 대입하여 $P = 9 - 3 = 6$이다.
3. 총수입은 $TR = PQ = 6 \times 3 = 18$이다.
4. 총비용은 $TC = 0.5 \times 3^2 = 4.5$이다.
5. 독점이윤은 $\pi = TR - TC = 18 - 4.5 = 13.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독점이윤은 12가 아니라 13.5이다. 틀린 표현은 "독점이윤이 12"라는 값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MR = MC$에서 $Q = 3$, $P = 6$, $\pi = 13.5$가 된다.
② O: $MR = MC$로 구한 생산량 $Q = 3$을 이용하면 총수입 18, 총비용 4.5이므로 독점이윤은 13.5가 된다.
③ X: 18은 독점이윤이 아니라 총수입이다. 틀린 표현은 "독점이윤이 18"이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TR = 18$, $TC = 4.5$, 이윤은 13.5이다.
④ X: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3.5만큼 양의 이윤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아 손실이 아니라 이윤이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③처럼 총수입 TR을 곧바로 이윤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독점문제에서 수요함수만 보고 가격을 먼저 정한 뒤 비용을 빼지 않으면 ①이나 ③ 같은 오답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계산형은 수요함수로 TR을 만든 뒤 MR과 MC를 비교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pi = TR - TC$까지 계산해 총수입과 이윤을 구분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이윤 문제는 $MR = MC$로 생산량을 구하고, 그다음 가격과 이윤 $\pi = TR - TC$를 순서대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14.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② 가계의 미래 기대소득 증가

③ 외국 대비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

④ 법인세 인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순수출 가운데 어떤 요인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는 각 물가수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려는 총지출의 크기이며,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이 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소비는 현재소득뿐 아니라 미래 기대소득의 영향도 받으므로 기대소득이 오르면 현재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대로 이자율 상승은 투자와 이자민감적 소비를 줄이고, 자국 통화가치 절상은 순수출을 줄이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유인을 약화시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투자와 내구재 소비를 위축시키므로 총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틀린 표현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기준금리 인상은 총수요 감소 요인이다.
② O: 가계의 미래 기대소득이 증가하면 앞으로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소비를 더 하게 되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X: 외국 대비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은 자국 상품의 상대가격을 높여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므로 순수출이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절상이 총수요 증가 요인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국 통화가치 절상은 총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④ X: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세후수익성과 투자유인을 낮춰 투자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틀린 표현은 법인세 인상이 총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법인세 인상은 총수요 감소 요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총수요의 방향을 묻는 문제에서 "좋아 보이는 변수"와 "지출을 실제로 늘리는 변수"를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③의 "통화가치 절상"은 환율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면 강한 통화가 경기에도 좋다고 착각하기 쉽고, ①과 ④도 금리·세금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연결고리를 놓치면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 무엇을 직접 늘리거나 줄이는지 먼저 연결하면 된다. 지출 항목을 늘리면 총수요 오른쪽 이동, 지출 항목을 줄이면 총수요 왼쪽 이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대소득 상승은 소비 증가로 AD 우측 이동, 금리 상승·통화 절상·법인세 인상은 투자나 순수출 감소로 AD 좌측 이동이다.

NoteBase

문 15. 두 재화 X, Y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 = \min(3X, Y)$이다. 소득이 10만원이고, X와 Y재의 가격은 각각 1만원과 2만원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와 Y재 각각의 소비량은?

① X재: $\frac{10}{3}$, Y재: $\frac{10}{3}$
② X재: $\frac{10}{5}$, Y재: $\frac{20}{5}$
③ X재: $\frac{10}{7}$, Y재: $\frac{30}{7}$
④ X재: $\frac{10}{9}$, Y재: $\frac{40}{9}$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완전보완재 효용함수 $U = \min(3X, Y)$에서 효용극대 조건 $3X = Y$와 예산제약을 함께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득은 10만원이다.
X재 가격은 1만원, Y재 가격은 2만원이다.
효용함수는 $U = \min(3X, Y)$이므로 효용극대점에서는 $3X = Y$가 성립한다.

사용할 공식

완전보완재는 굴절점에서 소비하므로 $3X = Y$를 먼저 맞춘다.
예산제약은 $10000X + 20000Y = 100000$이다.

계산 과정

1. $3X = Y$이므로 Y를 $3X$로 바꾼다.
2. 예산식에 대입하면 $10000X + 20000(3X) = 100000$이다.
3. $70000X = 100000$이므로 $X = \frac{10}{7}$이다.
4. $Y = 3X = \frac{30}{7}$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의 "X재 $\frac{10}{3}$, Y재 $\frac{10}{3}$"은 예산은 다 쓰지만 $3X = Y$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 값은 $X = Y$로 잘못 본 경우의 수치이다.
- 올바르게는 X재 $\frac{10}{7}$, Y재 $\frac{30}{7}$이다.

② X
- ②의 "X재 $\frac{10}{5}$, Y재 $\frac{20}{5}$"도 예산은 다 쓰지만 $Y = 2X$일 뿐 $3X = Y$가 아니다. 보완재의 결합비율을 잘못 맞춘 값이다.
- 올바르게는 X재 $\frac{10}{7}$, Y재 $\frac{30}{7}$이다.

③ O
- ③의 "X재 $\frac{10}{7}$, Y재 $\frac{30}{7}$"은 $3X = Y$와 예산제약을 동시에 만족한다.
- $10000 \times \frac{10}{7} + 20000 \times \frac{30}{7} = 100000$이므로 정확히 효용극대점의 소비조합이다.

④ X
- ④의 "X재 $\frac{10}{9}$, Y재 $\frac{40}{9}$"은 예산은 다 쓰지만 $Y = 4X$라서 필요 이상으로 Y재를 많이 산 조합이다.
- 올바르게는 X재 $\frac{10}{7}$, Y재 $\frac{30}{7}$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보완재에서는 한계대체율을 따지기보다 먼저 결합비율을 맞춘다. 이 문제의 함정은 ①처럼 $X = Y$로 보거나, ②·④처럼 예산만 맞는 임의의 조합을 고르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보완재 효용함수가 나오면 먼저 min 안의 두 항을 같게 두어 굴절점 조건을 만든다. 그다음 그 비율을 예산식에 대입해 소비량을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보완재는 비율을 먼저 맞추고 예산식에 대입해 푼다.

NoteBase

문 16. <보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갑(甲)사의 전기생산과정에서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을(乙)마을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아황산가스의 배출수준은 100만톤 수준이지만 현재 150만톤이 배출되고 있다.

① 정부는 아황산가스 배출수준을 직접 규제하거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배출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코우즈(Coase)정리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배출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③ 협상 과정에서 소요되는 거래비용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④ 코우즈정리의 성립을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외부성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정적 외부성과 코우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주어진 오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갑사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을마을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배출량은 150만 톤인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출량은 100만 톤이므로 과다배출 상태이다.
따라서 배출을 줄이게 만드는 정부 개입이나 사적 협상의 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피해를 제3자에게 주는 경우이다.
코우즈 정리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매우 낮거나 없으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과다한 오염배출이라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직접규제·조세 부과가 가능한지, 또는 사적 협상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
핵심은 거래비용과 정보, 그리고 협상 가능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정부는 배출기준을 직접 설정하는 규제정책이나 피구세와 같은 조세정책으로 배출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깝게 조절할 수 있다.
2번 O: 코우즈 정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이해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으면 효율적 배출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이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매우 낮거나 없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3번 O: 현실에서는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코우즈 정리가 항상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4번 X: 코우즈 정리가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이 외부성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협상 당사자들이 비용과 편익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4번은 코우즈 정리를 거래비용 조건만으로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 선지이다. 거래비용이 낮더라도 당사자들이 피해와 편익을 전혀 알지 못하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놓치면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성 사례가 나오면 먼저 시장실패의 방향이 과다생산·과다배출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해결수단을 정부개입과 사적 협상으로 나누고, 코우즈 정리 선지가 나오면 재산권, 거래비용, 정보 조건을 함께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코우즈 정리는 재산권 명확, 거래비용 낮음, 협상 가능 정보가 갖추어질 때 사적 협상으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NoteBase

문 17.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멜서스(Malthus)의 이론은 수확체감의 법칙만 강조하여 경제의 성장경로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② 솔로우(Solow) 모형은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한계수확체감 및 규모수익불변의 총생산함수를 가정한다.

③ 솔로우 모형은 절대적 수렴 가설을 뒷받침한다.

④ 서로 다른 경제구조를 갖는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건부 수렴 가설이라고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솔로우 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의 구분, 그리고 절대적 수렴과 조건부 수렴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맬서스 이론은 토지 제약과 수확체감, 인구증가 때문에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이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고 본다.
솔로우 모형은 자본의 한계수확체감과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는 외생적 성장모형이다.
절대적 수렴은 경제구조가 같을 때 가난한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해 같은 정상상태로 접근한다는 뜻이고, 조건부 수렴은 경제구조가 다르면 각기 다른 정상상태로 수렴할 수 있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맬서스 이론은 토지라는 고정요소와 수확체감을 중시하고, 인구증가가 소득 증가를 다시 잠식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지속적 성장경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솔로우 모형은 기술진보를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두는 외생적 성장모형이다. 한계수확체감과 규모수익불변의 총생산함수를 가정한다는 뒤의 설명은 맞지만, 앞의 분류가 틀렸으므로 전체 선지는 틀리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솔로우 모형은 외생적 성장이론으로 한계수확체감 및 규모수익불변의 총생산함수를 가정한다"이다.

③ O
기본적인 신고전파 성장모형의 문맥에서는 구조가 동일한 경제들 사이에서 자본이 적은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하므로 절대적 수렴을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본다. 자본축적에 한계수확체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후발국이 따라잡을 여지가 생긴다.

④ O
조건부 수렴은 저축률, 인구증가율, 기술수준 등 경제구조가 다르면 각 나라가 같은 소득수준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동일한 정상상태로 모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한계수확체감", "규모수익불변"이라는 솔로우 모형의 진술이 맞아서 전체가 맞는 선지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출제자는 앞에 붙은 "내생적"이라는 한 단어를 바꿔 놓았다. ③과 ④도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③은 구조가 같은 경우의 절대적 수렴이고 ④는 구조가 다른 경우의 조건부 수렴이므로 전제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장모형 문제는 먼저 외생적 성장인지 내생적 성장인지부터 구분한다. 솔로우는 기술진보가 외생적이고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이 핵심이다. 그다음 수렴 문제는 "경제구조가 같은가 다른가"를 확인한다. 구조가 같으면 절대적 수렴, 구조가 다르면 조건부 수렴으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는 외생적 성장, 내생적 성장은 기술진보가 모형 내부이다. 구조가 같으면 절대수렴, 구조가 다르면 조건부 수렴이다.

NoteBase

문 18. 사과와 배만을 생산하는 국가의 2020년도와 2021년도 가격과 생산량이 <보기>와 같다. 이 경제의 (가) 2021년도 명목국내총생산, (나) 2021년도 실질국내총생산, (다) 2021년도 GDP디플레이터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2020년이 기준 연도이다.)

〈보기〉

	사과		배	
	가격(원)	생산량(개)	가격(원)	생산량(개)
2020년	10	100	20	20
2021년	20	200	40	100

① (가): 8,000, (나): 2,800, (다): 200

② (가): 8,000, (나): 4,000, (다): 200

③ (가): 8,000, (나): 2,800, (다): 100

④ (가): 8,000, (나): 4,000, (다): 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GDP,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GDP, 그리고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실질GDP) × 100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2020년 사과 가격 10원, 생산량 100개
- 2020년 배 가격 20원, 생산량 20개
- 2021년 사과 가격 20원, 생산량 200개
- 2021년 배 가격 40원, 생산량 100개

구해야 할 값:
- 2021년도 명목국내총생산
- 2021년도 실질국내총생산(2020년 기준연도)
- 2021년도 GDP디플레이터

주의할 조건:
- 실질GDP는 2021년 생산량에 2020년 가격을 곱해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명목GDP는 당해연도 가격과 당해연도 생산량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실질GDP는 기준연도 가격과 당해연도 생산량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 $\times$ 10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2020년이 기준연도라고 주어졌으므로 2021년 산출량을 2020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GDP를 먼저 구한 뒤 명목GDP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21년 명목GDP는 $20 \times 200 + 40 \times 100 = 4,000 + 4,000 = 8,000$이다.
2. 2021년 실질GDP는 2020년 가격을 적용하므로 $10 \times 200 + 20 \times 100 = 2,000 + 2,000 = 4,000$이다.
3. 2021년 GDP디플레이터는 $\frac{8,000}{4,000} \times 100 = 2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 8,000은 맞지만 (나) 2,800이 틀렸다. 실질GDP는 2020년 가격으로 2021년 생산량을 평가하므로 4,000이 맞다.
- 틀린 표현은 '(나) 2,800'이다. 올바르게는 '(나) 4,000'이다.

② O
- (가) 8,000, (나) 4,000, (다) 200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 명목GDP와 실질GDP를 구한 뒤 비율에 100을 곱하면 GDP디플레이터 200이 된다.

③ X
- (가) 8,000은 맞지만 (나) 2,800과 (다) 100이 틀렸다. 실질GDP는 4,000이고, GDP디플레이터는 $\frac{8,000}{4,000} \times 100 = 200$이다.
- 틀린 표현은 '(나) 2,800, (다) 100'이다. 올바르게는 '(나) 4,000, (다) 200'이다.

④ X
- (가) 8,000과 (나) 4,000은 맞지만 (다) 100이 틀렸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와 실질GDP가 같을 때 100이 되는데, 이 문항에서는 명목GDP가 실질GDP의 2배이므로 200이 된다.
- 틀린 표현은 '(다) 100'이다. 올바르게는 '(다) 200'이다.

오답 포인트

실질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2021년 가격을 섞어 쓰거나 GDP디플레이터에서 ×100을 빠뜨리면 2,800이나 100 같은 오답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소득 계산형 문제는 먼저 기준연도와 당해연도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명목GDP와 실질GDP를 각각 계산한 뒤, 마지막에 (명목GDP)/(실질GDP) × 100으로 GDP디플레이터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명목은 올해 가격, 실질은 기준연도 가격, 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 × 100이다.

NoteBase

문 19. 완전경쟁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조건에 대한 <보기>의 내용에서 (가)와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이 (가) 과 같을 때 수지균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만약 가격이 (나) 보다 낮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① (가): 최소 총가변비용, (나): 최소 평균고정비용
② (가): 최소 총가변비용, (나): 최소 평균가변비용
③ (가): 최소 총평균비용, (나): 최소 평균고정비용
④ (가): 최소 총평균비용, (나): 최소 평균가변비용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수지균형점과 단기 조업중단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지균형은 경제적 이윤이 0인 상태로 가격이 총평균비용과 같을 때이며, 완전경쟁기업의 손익분기점은 총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조업중단점은 단기적으로 가변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기준점으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과 같아지는 최저점이며, 가격이 그보다 낮으면 생산을 멈추는 편이 손실을 줄인다.
평균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늘수록 계속 낮아지므로 조업중단의 기준점이 될 수 없고, 총가변비용은 총액 개념이어서 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지균형은 가격이 최소 총평균비용과 같을 때이므로 (가)에 최소 총가변비용을 넣으면 틀리다. 또 조업중단 기준은 최소 평균고정비용이 아니라 최소 평균가변비용이다. 틀린 표현은 "최소 총가변비용", "최소 평균고정비용"이다. 올바르게는 "최소 총평균비용", "최소 평균가변비용"이다.
② X. (나)를 최소 평균가변비용으로 둔 점은 맞지만, (가)를 최소 총가변비용으로 둔 점이 틀리다. 수지균형은 총비용까지 모두 보전되는 점이므로 최소 총평균비용이 기준이다. 틀린 표현은 "최소 총가변비용"이다. 올바르게는 "최소 총평균비용"이다.
③ X. (가)를 최소 총평균비용으로 둔 점은 맞지만, (나)를 최소 평균고정비용으로 둔 점이 틀리다. 평균고정비용은 조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단기 조업중단점은 최소 평균가변비용이다. 틀린 표현은 "최소 평균고정비용"이다. 올바르게는 "최소 평균가변비용"이다.
④ O. 가격이 최소 총평균비용과 같으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 경제적 이윤이 0인 수지균형 상태가 된다. 또 가격이 최소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가변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므로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 포인트

총가변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을 혼동하거나, 평균고정비용도 어떤 최소점이 있으리라고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손익분기점은 총평균비용,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바꿔 끼우는 함정을 사용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지균형을 묻는다면 가격이 총평균비용까지 모두 덮는지를 본다. 단기 조업중단을 묻는다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을 덮는지만 본다. 고정비용은 단기에 이미 부담된 비용이므로 조업중단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손익분기점은 최소 총평균비용, 조업중단점은 최소 평균가변비용이다.

NoteBase

문 20. 프랑스에서 와인 한 병의 가격은 35유로이고, 한국에서는 7만원이다. 명목 환율이 1유로당 1,400원일 때, 실질 환율은?

① 1,000원당 0.7유로

② 1유로당 2,000원

③ 프랑스 와인 1병당 한국 와인 0.7병

④ 한국 와인 1병당 프랑스 와인 2병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환율과 양국 물가를 이용해 실질환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프랑스 와인 1병 가격 35유로, 한국 와인 1병 가격 70,000원, 명목환율 1유로당 1,4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프랑스 와인 1병의 가격을 한국 와인 몇 병과 교환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실질환율이다.
주의할 조건은 명목환율을 원화 기준으로 먼저 곱한 뒤 한국 와인 가격으로 나누어 병 수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실질환율은 eP^*/P이다.
여기서 e는 명목환율, P^*는 프랑스 와인 가격, P는 한국 와인 가격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외국 상품 가격을 자국 통화로 바꾼 뒤 자국 상품 가격과 비교하면 외국 상품 1단위를 자국 상품 몇 단위와 교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프랑스 와인 1병을 원화로 바꾸면 35유로 × 1,400원 = 49,000원이다.
2. 이를 한국 와인 가격 70,000원으로 나누면 49,000원 ÷ 70,000원 = 0.7이다.
3. 따라서 프랑스 와인 1병은 한국 와인 0.7병과 교환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1,000원당 0.7유로라는 표현은 환율 단위 자체가 다르고 수치도 맞지 않는다. 이 문제의 실질환율은 원화와 유로의 교환비율이 아니라 상품 대 상품의 교환비율이다. 틀린 표현은 '1,000원당 0.7유로'이고, 올바르게는 '프랑스 와인 1병당 한국 와인 0.7병'이다.
② X: 1유로당 2,000원은 명목환율을 잘못 바꾼 값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명목환율은 이미 1유로당 1,400원이다. 틀린 표현은 '1유로당 2,000원'이고, 올바르게는 '1유로당 1,400원'이다.
③ O: 프랑스 와인 1병의 원화 가격은 49,000원이고, 이는 한국 와인 70,000원의 0.7배이므로 프랑스 와인 1병당 한국 와인 0.7병이 맞다.
④ X: 한국 와인 1병당 프랑스 와인 2병이라는 값은 실제 역수보다 크게 잡은 오답이다. 한국 와인 1병은 프랑스 와인으로 바꾸면 $70,000 \div 49,000 \approx 1.43$병이다. 틀린 표현은 '프랑스 와인 2병'이고, 올바르게는 '프랑스 와인 약 1.43병'이다.

오답 포인트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구분하지 못하면 ①이나 ②처럼 통화 대 통화 비율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 또 ④처럼 역수를 대충 2로 처리하면 상품 간 교환비율을 잘못 읽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질환율 문제는 외국 상품 가격을 먼저 명목환율로 자국 통화로 바꾸고, 그 값을 자국 상품 가격으로 나누어 상품 몇 단위와 교환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질환율은 외국 상품의 자국통화 가격 ÷ 자국 상품 가격이며, 이 문항에서는 프랑스 와인 1병 = 한국 와인 0.7병이다.

NoteBase